

해양치유 산업에 관한 고찰

이시경*

경동대학교 물리치료학과

A review on the Marine Healing Industry

Si-Kyoung Lee*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Kyund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해양치유 산업의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해양요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요법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탈라소테라피는 예방 및 치료적 목적으로 해양의 유익한 성분인 해양기후, 해수, 해양 진흙, 해조류, 모래 및 기타 해양 추출물을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태안, 고성, 울진 등의 해양치유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센터는 지역 관광과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활클리닉 내 프로그램이 잘 결합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지역 내 해양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해양치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각 부처 간, 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제도적 기반과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해양치유 R&D 사업이 연안 지역별 해양치유 센터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확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marine therapy through an overall review of the marine therapy industry and provide basic data for policy establishment on marine therapy based on this. Talassotherapy refers to the medical use of marine climate, seawater, marine mud, algae, sand and other marine extracts, which are beneficial components of the ocean for preventive and therapeutic purposes. Centers in Taaean, Goseong, Uljin, and other marine healing pilot projects should be well combined with programs within rehabilitation clinics so that local tourism and marine healing programs can be combined, and how well the existing marine infrastructure is established is a very important factor.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inter-ministerial and central-local cooperative governance by reorganiz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marine healing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ministries and region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unction of the marine therapy R&D project to play a role as a marine therapy center for each coastal region.

Key Words Marine Healing, Worcation, Thalassotherapy, Ocean

1. 서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54년 7.5%로 시작해 1966년 12.0%, 이후 1973년 14.9%로 종점을 찍은 후 1994년 9.3%로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하였다. 2001년 9.11 테러와 닷컴 버

블이 붕괴되며 4.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2017년 1인당 GDP 3만 달러를 넘게 되었고 이후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2022년 2.6%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G20 회원국의 GDP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3년 10위, 2009년 5위, 2020년 4위로 가장

이 논문은 2023년도 경동대학교 교비 연구비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i-Kyoung(Kyundong Univ.)

E-mail: lskwolf@kduniv.ac.kr

Received Oct 13, 2023

Revised Nov 05, 2023

Accepted Nov 22, 2023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여러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2022년 기준 3위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한국인의 노동 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31개 국가 중 2021년 기준 연간 근로 평균 시간은 1,601시간으로 조사되었다[2]. 우리나라는 이미 2004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였으나, 주당 근무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OECD 평균 7.4%보다 높은 18.9%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의 근무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장 및 혈관계통의 질환을 유발하고 수면장애, 만성 피로 등의 개인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감소함에 행복감과 삶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과 가정, 여가 생활의 균형이 강조되어 여가 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말이나 가족 단위의 캠핑족 및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국민 여가 활동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였고 재택근무, 화상회의, 비대면 강의 등이 일반화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근로자의 만족도 향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젊은 세대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유입되고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소멸 위험을 해소하고자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워케이션’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워케이션(worc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광과 휴양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기간 머물며 일과 휴

식을 병행하는 체류형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6]. 지역 휴양자원을 이용한 국가 균형발전이 강조되어 지역 내 자연환경과 국민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 분야에서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 및 치유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아직 유럽, 독일 등의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하고,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및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워케이션 및 휴테크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해양 치유 산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만의 해양 치유 산업의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양치유산업 실태

2.1 해양치유 산업 변화

수중운동 및 수치료로 물을 다양하게 이용하였고,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로 바다와 접해있고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에 관한 관심도 증가로 인해 해양치유 산업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5].

‘해양치유’는 바닷바람, 파도소리, 바닷물, 갯벌, 백사장, 해양생물 등 바다 자원을 활용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연안 지역의 성장 동력을 이끌 신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4].

해양치유 산업이 발달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해양치유’라는 개념으로 먼저 시작되었으며, 해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대중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의료보험 적용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만족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해양치유 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충청남도 태안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남도 고성군을 해양치유 관련 자원이 풍부한 지방자치단체로 4곳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완도, 태안, 울진, 경남 고성에 권역별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건립, 2020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였다.

2021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계획인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2~'26)' 수립하고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K-Marine Healing) 창출'이라는 비전 아래 2026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 및 1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2.2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 추진 전략

한국형 해양치유 모델의 3대 추진 전략에서 첫 번째 전략은 '사계절 해양치유 콘텐츠 발굴'이다.

해양치유의 효능검증과 활용 방안, 사후 처리까지 모든 과정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해양자원 플랫폼 활용을 통해 새로운 해양치유 자원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과 기전을 의과학적으로 검증 확인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 관리지침을 위한 메뉴얼도 제작되어 도입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 자원의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해양치유 자원의 재료와 특성, 이용자 접근성 등을 고려한 특성화 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경제적 소득 창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수욕장, 리조트 등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전략으로 '해양치유 서비스 인프라

조성'으로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자원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함께 지역의 특성화와 연계하고 있다. 해양치유 시범센터를 중심으로 해양치유 시설을 설치, 해양치유지구로 지정을 통해 산업거점으로 활용하고 한다. 충청남도 태안군의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가 이루어져 2022년 3월 '태안 해양치유센터'가 착공되었고 28개의 해수욕장과 연계한 해양레저 콘텐츠와 더불어 휴양 기반 시설을 활용한 레저복합형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센터, 센터 운영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정보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이용객의 해양치유 서비스 접근성,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 전략으로 해양치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들 수 있다. 대학, 지역 교육기관 등을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직 무능력표준 기반의 전문자격을 바탕으로 해양치유와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치유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통한 신뢰성, 안전성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3 해양치유 프로그램

최근 들어 라이프 스타일은 휴식과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해양스포츠 분야가 경제소득 증가와 근로시간의 변화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해양치유는 해양 휴양, 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프랑스의 경우 일부 요법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치유 프로그램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도 해양치유를 질병의 예방 및 건강 회복 등 복지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 연안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 Thalassotherapy Specialized Program by Region in Korea

[표 1] 해수요법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역	특성화 해양치유자원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태안	해염(자염), 해사, 피트	근골격계/부인과 질환 미용(해독/비만) 증진
울진	심층암반해수	알레르기성질환 (아토피 등)/COPD 스트레스 저감
고성	패류, 해양경관	근골격계/호흡기 질환 스트레스 저감
완도	해조류, 해니	골격계/관절염 질환 스트레스 저감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정주형과 체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순 체험형 프로그램에서 2박 3일 또는 3박 4일 등의 형태로 프로그램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해양치유센터 내외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분류는 신체적영역, 정신적 영역, 산업 및 자원화 영역으로 구분한다.

2.3.1 해양치유센터 내부 프로그램

1) 신체적 영역

(1) Watsu, Ai chi 등 수중 치유프로그램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일반인의 건강관리,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수중 바디웍으로 일대일 개인별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Fig. 1] WATSU exercise

[그림 1] 왓츠 수중운동

(2) 수중운동 집단참여 프로그램

지역 주민 프로그램 참가자의 건강증진 활동으로 건강 도시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아쿠아 트레이닝, 아쿠아로빅이 가장 대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6].



[Fig. 2] Wando-gun Marine Healing Center Thalassotherapy pool

[그림 2]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딸라소풀

(3) 근력향상 및 디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

필라테스, 스톤테라피, 해양자원을 이용한 스킨케어, 네일·페디아트, 조향 프로그램, 명상 등의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정신적 영역

(1) 명상 프로그램

명상 프로그램으로 해풍욕, 다도, 요가, 향기·소리·음악 테라피 등의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2)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입욕제 만들기 프로그램, 천연식품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가족 간 소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3) 산업 및 자원화 영역

미용산업 분야와 연계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해양 재료를 이용한 화장품, 피부관리 제품 개발, 치유센터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내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상담실과 카페, 편의점, 라운지 등 이용객 편의 시설을 확보하여 관광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다.

2.3.2 해양치유센터 외부 프로그램

1) 신체적 영역

일반적으로 지역 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치유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양 노르딕워킹, 지역 내 개발된 둘레길 걷기, 해수 흡입, 바다풀을 이용한 수중운동(해수 입욕), 근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동 치료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있다.

2) 정신적 영역

해양치유 센터 외부의 환경 조성을 통해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풍욕, 다도, 요가 등이 있다.

3. 맺음말

해양치유 산업은 해변과 접한 지역에서 호텔, 관광, 치유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해양요법으로 탈라소테라피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탈라소테라피는 예방 및 치료적 목적으로 해양의 유익한 성분인 해양기후, 해수, 해양 진흙, 해조류, 모래 및 기타 해양 추출물을 의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3].

해외의 사례로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최초로 산업화하였고 대표적으로 랑그도크루시옹 지역(Languedoc-Roussillon), 아키텐(Aquitaine) 지역이 유명하다. 독일은 1884년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재활 및 치유를 목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였다. 독일은 치료휴양지의 개념으로 쿠어오르트(Kurort)가 있다. 쿠어오르트(Kurort)는 치료·요양이란 뜻의 쿠어(Kur)와 장소라는 오르트(Ort)의 합성어 로마 시대부터 뜨거운 증기나 광천수 등을 치료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독일에서는 1581년 바드 슈발바흐(Bad Schwalbach) 지역에 쿠어오르트(Kurort)가 있었고 1632년 요한 노프(Johann Nopp)가 아헨(Aachen) 지역에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소를 운영 하였다. 현대적인

형태의 쿠어오르트는 18세기 영국에서 증상류층을 위해 처음 열렸는데 이후 19세기부터는 유럽대륙으로 퍼져나갔다. 현재 독일 전체적으로는 약 350여 개의 쿠어오르트가 있고 각각의 쿠어오르트에서는 지역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고유의 치료 프로그램 재활 및 휴양을 목적으로 사회보장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

‘사회법 제5권’, ‘예방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을 인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한 휴가지의 역할과 함께 대체의학적인 방식과 재활병원도 함께 갖추고 있다. 우제돔(Usedom) 섬의 우제돔 재활클리닉(Rehabilitation Clinic Usedom)은 정형외과, 류마티스 및 호흡기 질환 전문클리닉으로 유명하다. 해수를 활용한 온천욕, 백사장의 일광욕, 인근 숲 체험 등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3주 과정 또는 일정 기간 치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부터 오키나와현에서 해양 치유가 활성화되었으며 온화한 기후와 관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중요한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대학 주도의 해양치유 시설 인증을 마련하고 민간 주도로 육성되어 지역 주민의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안, 고성, 울진 등의 해양치유 시범사업 지역에서의 센터는 지역 관광과 해양 치유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활클리닉 내 프로그램이 잘 결합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지역 내 해양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양치유 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과 이용편의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현대적 시설과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등이 주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추진 과제로 해양치유 및 휴양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해양 치유 자원의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하다.

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해양치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각 부처 간, 지역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제도적 기반과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해양치유 R&D 사업이 연안 지역별 해양치유 센터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능확충이 필요하다.

Reference

- [1] worldbank.org, 2023
<https://www.worldometers.info/gdp/>
- [2] Hyejin Noh, A Categorization of Time Guarantee in Work-Life Balanc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43, No.2, pp.192-214, 30 June 2023
- [3] Jwangwon Hong, In Joo Yoon, Ilsun Choi, Jung A Lee, Introduction of Marine Recreation and Welfare Service through Promoting Coastal Wellness Industry, KOREA MARITIME INSTITUTE, 2019
- [4] 해양수산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2021
- [5] Lee Si Kyoung, Effects of Ai Chi Exercise on Flexibility and Blood Pressure and Stress of the Women's Elderly, Korean Aging Friendly Industry Association, Vol.10, No.2, p141-149,
- [6] Lee Si Kyoung, Influence of the Aqua Exercise on Blood lipids in Obese Old Women,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11, No.1, p149-123, 2023
- [7] Lee Si Kyoung, The Effect of Hot Spring Bath on muscle spindles and Body Balance,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10, No.2, p387-391, 2022